

종교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로 알려주세요.



가짜 목걸이

부처님 오신날 봉축범어 발표



부처님오신날(22일)을 맞아 불교 주요 종단 지도자들이 봉축 범어를 발표했다.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봉축 범어에서 “부처님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일성을 보이심은 생명의 존엄과 천부적 자유를 내보이신 것”이라며 “또한 일체의 중생들을 생사윤회의 고통에서 구제하고, 본래의 성품인 참 나를 밝혀 행복하게 사는 아름다운 세상을 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어 “불교는 1,700년간 우리 민족 정신문화의 근간이었기에 우리 남북한 민족의 유전자에는 불교가 깊이 내재되어 있다.”며 “남북이 진정으로 하나 되는 길은 우리 모두가 참선 수행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갈등과 불신을 없애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자.”고 말했다.

한국불교 대교종 종정 혜초 스님은 봉축 범어에서 “한반도에 좋은 소식이 오고, 우리 불교에도 밝은 빛이 도래해서 남과 북이 본래 하나 되고 한민족이 세계불교를 견인해 가는 부처님오신날이 되도록 봉축하자.”고 밝혔다.

대한불교천태종 김도용 종정은 봉축 범어에서 “행복은 위대한 버림 속에 있느니, 즐거움을 만나도 합부로 하지 않고 괴로움 속에서도 근심을 더하지 않으며, 다툼이 없는 가운데 진정한 평온을 누리라.”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은 부처님오신날 남북공동발원문을 채택했다고 15일 밝혔다. 남북 불교계가 공동발원문을 채택하기는 2015년 부처님오신날 이후 3년 만이다. 공동발원문은 “우리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자주의 원칙을 확인한 역사적인 판문점 선언은 남과 북이 함께 새로운 역사의 출발을 선포한 신호탄이며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고 자주통일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설가 모파상(1850-1893)은 프랑스의 노르망디에서 태어났습니다. 12세부터 별거한 어머니 밑에서 문학적 감화를 받고 자랐으며 청년 시절에는 플로베르에게 지도를 받아 작가로 성장했습니다.

30세에 쓴 「비계덩어리」가 처녀작인 그의 장편소설 「여자의 일생」은 플로베르의 「보봐리 부인과 함께 사실주의 문학의 걸작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신경질환으로 고통을 받다가 자살을 기도, 정신병원에서 43세의 한창나이에 어두운 일생을 마친 천재 작가입니다.

그의 작품 중 「목걸이」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단편소설일 것입니다.

마틸드는 호화로운 생활을 꿈꾸며 사는 여자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장관이 주최하는 파티에 초대되었습니다. 남편은 아껴두었던 돈으로 옷을 사주었습니다. 친구인 프레스체 부인에게서 진주목걸이(원작에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빌려 치장하고 파티에 참석한 마틸드는 누구보다 아름다웠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와서 그녀는 목걸이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그들 부부는 전 재산을 처분하고 모자라는 돈은 빚을 얻어 빌렸던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사서 프레스체 부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러고나서 두 사람은 빚을 갚기 위해 10년이나 고생하게 됩니다.

더러운 곳에서 먹을 것도 못먹고, 마틸드는 빨래일을 하면서 고생을 하는 동안 그 아름답던 얼굴은 비참하게 되었으며,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습니다. 마침내 빚을 다 갚



았을 무렵, 우연히 프레스체 부인을 만나게 되자 다소 자랑스레 그간의 일을 고백하게 됩니다. 얘기를 다 들은 프레스체 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돌려준 그 목걸이 값을 갚느라 10년이나 고생을 했던 말이에요? 이를 어찌! 마틸드, 그 목걸이는 싸구려 가짜였어요.”

주님은 하늘나라의 신비를 가르쳐주기 위해 갓은 노력을 다하십니다. 주님은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를 통해 하늘나라를 설명하시는 것을 시작으로 가라지, 겨자씨, 누룩 등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재로 비유하시다가 마침내 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싶어하는 ‘보물’, ‘진주’의 비유로써 하늘나라를 설명하십니다.

“하늘나라는 어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길 수 있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면 있는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산다” (마태 13,45-46).

우리들의 인생이란 주님의 말씀처럼 좋은 진주 하나를 찾아다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찾아다니는 진주는 대부분 모파상의 소설처럼 가짜인 것입니다. 그 진주는 가짜이므로 오히려 진짜보다 더 화려하며 하룻밤의 무도회에서는 샹들리에 불빛 아래서 눈부시게 반짝일 것입니다.

가짜 목걸이에 물려드는 인기와 갈채야말로 우리들을 황홀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 하룻밤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짜 목걸이에 취해서 아까운 인생을 허비하며 가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진짜 진주목걸이입니다. 주님의 진주목걸이야말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 그것을 살 만큼 충분한 가치가 있는 천상의 보물인 것입니다.

-최인호(작가)-

타운뉴스 업소록

“얼마 남지 않았습니 다.”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Fax: _____

주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